

2017년도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7. 9. 28(목) 10: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2실

2017년도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18작품으로, 초연부문 10작품, 재연부문 8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다.

작곡가 부문과 지휘자 부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기획연주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와 지원신청서,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 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국악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현악 어법구사에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이 많이 보인 경향이다.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협주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악기 탐구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돋보인다. 그러나 기존 작품들과 유사한 경향의 작품이 많아 아쉬웠고, 새로운 시각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통 음악의 내포하고 있는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작곡가 특유의 작품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요구된다.

또한 젊은 작곡가들의 신선한 도전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국악의 본질적인 특성의 바탕 위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법을 구사하는 신진 작곡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